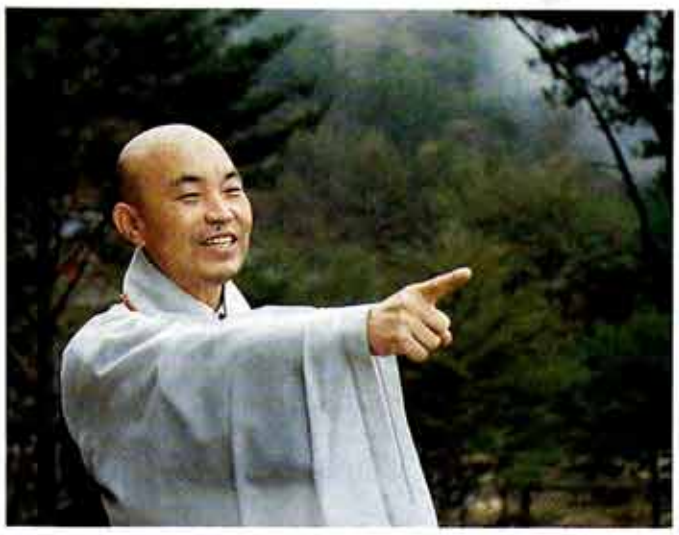
도락산 64만평 성지화… '世界一花' 도량 선다



"상구보리·하화중생위해 많은 불사 일으키겠습니다"

광덕사 대작불사 여념없는 혜인스님

부처님께서 "너는 왜 출가를 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혜인스님의 답변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발원하옵건대 상구보리하고, 또 하화중생을 위해 많은 불사를 일으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혜인스님은 시쳇말로 불사의 귀재입니다.

지금은 제주도의 귀중한 볼거리의 하나로 자리잡아 외국인은 물론 신혼부부들까지 꼭 들러 참배하고, 적어도 관람하는 명소인 대 도량 약천사를 세워 조계종에 등록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약천사 불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적지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불사규모에 콧방귀를 뀌거나 비웃는 눈길도 있었지만, 지금 약천사는 하루 평균 버스 80대 정도가 찾아오는 세계적인 절이 된 것입니다.

스님의 불사관은 이렇습니다.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명분을 갖는 부처님 심부름을 하자. 그 원력으로 추진해 마침내 이루어지면 회향이고, 또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저절로 전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은 오늘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다."

특히 대작불사의 경우 보람이 큰 만큼 어려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스님이 늘 견지하는 '성공철학'이 있습니다.

"뜸이가 맞아야 더 잘돕고, 열음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녹으면 물의 양도 많아지듯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않고 후퇴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공이다."

한편, 스님의 수행 정진 이력은 투철하다못해 무서울 정도라는 표현이 어울린다고들 합니다. 불사 추진력도 기도 정진이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출생해 15세에 불교에 입문하고 16세에 계를 받아 스님이된 혜인스님은 18세부터 참선 정진에 주력했습니다. 대구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동안거를 시작으로 제방선원에서 효봉스님, 금오스님, 동산스님, 향곡스님, 경봉스님, 성철스님, 서옹스님, 일타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의 지도를 받으며 정진수행 하였습니다.

이후 교학을 겸비할 뜻을 세우고 늦은 나이에 해인승가대학에 입학해 18회로 졸업하였습니다.

"역사와 함께 빛날 값진 '문화유산' 만들터"

부산~강릉 걸식도보…200일간 100만배 정진

강원과 선방을 두루 섭렵한 스님은 보행정진을 통한 만행을 결행합니다. 21세에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걸어서 걸식을 하며 마침내 강릉 보현사에 도착해 100일 동안 묵언정진하면서 하루 3천배씩 100일 기도를 성취하였습니다.

그후 성철스님의 가르침으로 해인사 장경각에서 매일 5천배씩 2백일 동안 100만배를 성취 회향하게 됩니다.

광덕사 불사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스님은 현재 중생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알려주고 축원하는데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광덕사 스님 처소 앞마당에 서있는 특이하게 생긴 소나무들이 바로 그 교재입니다. 열정어린 사랑을 하는 연인처럼 보이는 소나무, 중년 부부의 모습을 한 소나무 두그루, 노년의 부부 모습으로 효심을 떠오르게 하는 소나무… 스님은 이들 소나무에 사랑송(松) 화목송(松) 효도송(松) 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모든 이들이 이처럼 되라고 늘 축원합니다.

단양 도락산 광덕사 '금동대불 백만불전'



◇도락산 정상 가까이 자리한 극락전.



◇11월2일 기공식에서 공개된 '금동대불 백만불전' 조감도.

세계인이 함께사는 법계도량 '단양 제9경'

연건평 3천평…복장 등에 1백만불 봉안

옥상에 33m 금동좌불…어깨까지 108계단 올라 참배가능

충북 단양 바위산으로 유명한 도락산(道樂山)에 세계인이 함께 수행하며 살 이른바 '사해일가 세계일화(四海一家 世界一花)' 도량이 들어섭니다.

광덕사 회주 혜인스님이 1천고지 64만평을 성지화하고 '금동대불 백만불전'을 건립합니다.

연건평 3천평에 들어설 백만불전은 법당내 엘리베이터 4대가 설치되며 꼭대기인 6층 옥상에 높이 33m의 금동좌불이 봉안되고, 부처님 좌대부터 어깨까지 108계단이 설치돼 직접 올라가 참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백만불전 안에는 방사가 100개가 들어서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넉넉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인종 국가 민족 성별 신분을 초월해 세계인이 함께 어울려 수행정진하는 산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만불전이 완성되면 이미 들어선 산정상 인근에 위치한 극락전과 함께 도락산 덩어리가 하나의 법계도량으로 장엄한 면모를 드러내 단양의 팔경에 하나를 더 보태 '단양 제9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11월2일 마침내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불사에 들어가는 도락산 광덕사는 지금 한마디로 불사중입니다. 산아래 백만불전 자리에는 포크레인이 터를 닦느라 분주하고 정상 가까이 극락전까지 도로포장 및 확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도락산이 새롭게 20세기 불교성지로 거듭나는 역사의 현장 그 자체입니다.

광덕사 불사의 착수는 아주 간절하게 10여년 품어온 회주 혜인스님의 원력에 마침내 시절인연이 닿은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 낙산대불보다 더 거대한 불사를 일으켜 민족이 화합해 통일되고 세계인이 부처님 품안에서 어울려 살며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원력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990년의 일입니다. 혜인스님은 은사이신 故일타스님을 모시고 35일 동안 중국성지순례를 다니던 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낙산 대불을 참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현지 안내원으로부터 낙산대불이 조성된 유래와 공덕을 듣게된 것입니다.

"대홍수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엄청난데다가 괴질마저 돌자 낙산 주민들은 앞다투어 고향을 떠날 때, 원님이 새로 부임하면서 백성들이 편안해질 방법을 찾고자 산신기도를 간절하게 드렸다고 합니다. 이때 원님 꿈에 산신이 나타나 '내 힘이 부족하니 이 산에 큰 부처님을 조성해 그 원력과 공덕으로 세상을 구하라'고 현몽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신심과 기도의 가피력에 감동했습니다. 그 순간 민족이 분단되고 지역갈등 가치관 혼란 등 편안치 못한 우리 현실에 가슴아팠던 저로서는 큰 지혜를 얻었습니다. 내 분명 우리나라에도 낙산대불보다 더 큰 대불을 조성하여 역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문화유산을 남기고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수행하다가 가야한다는 뜻을 굳게 다졌던 것입니다."

귀국후 스님은 전국 방방곡곡 명산을 돌아다니며 대불을 조성할만한 큰 바위산을 찾아 나섰지만, 대부분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국립공원지역이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현재 광덕사가 자리한 단양 도락산이 64만평 큰 바위산이라는 소식을 듣고 노력 끝에 매입하였습니다. 더구나 도락산은 우암 송시열선생이 글로 남겼듯이 애국애족하는 우국지사, 현인 달사들이 산수를 즐기고 인격을 도야하는 곳이라니 수행의 필수요건인 도량으로서는 최적지였습니다.

불사를 구체적으로 구상하면서 혜인스님은 젊은 시절 효봉스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사해일가요 세계일화이니라(四海一家 世界一花)"라는 법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동서양은 한집안이요, 세계는 아름다운 인류의 한송이 꽃이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언젠가는 실현하고 싶어 가슴깊이 묻어두었던 꿈이 솟구쳤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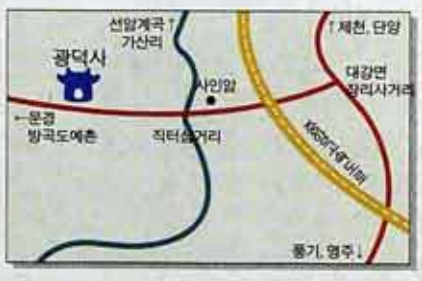
그래서 스님은 앞으로 건립될 백만불전에는 세계각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수행하며 법담과 덕담을 나누고 마음의 벽을 허물며 한집안 한형제처럼 지내는 법계총림으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수 있는 수행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참배하는 모든 이들이 감명을 받고 신심을 낼 수 있는 불사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지당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공덕사는 바로 오늘을 사는 이 시대 사람들이 수행하고 참배하기에 적합하고 다시 찾게끔 하기 위해 규모면에서나 기능면에서 특유한 법당으로 건립됩니다. 영산 도락산은 세계불교를 향한 한국불교의 산실 광덕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회주 혜인스님은 종파에도 매이지 않고 비구 비구니에 착하지 않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누구나 모든 사부대중이 맘 편하게 함께 기거하며 수행할 수 있는 도량으로 운영한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모든 살림살이는 비구니 스님들과 신도들에 의해 공개 운영됩니다.

혜인스님은 또 "광덕사는 외국어를 잘하는 스님을 방장스님으로 모실 계획입니다. 또 원력에 부응하는 스님, 능력있는 불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밀어주고 협조하는 위치에서 수행하고 싶습니다."고 밝힙니다.



광덕사 오시는 길

●서울에서 중부고속도로→호법 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 진입→남원주에서 중앙고속도로→제천I.C→단양방면으로→대강→사인암에서 3Km 지점 우측에 광덕사 위치

●부산에서 경부고속도로→북대구에서 중앙고속도로→통기I.C→제천 단양 방면→대강에서 좌회전→사인암→방곡도예촌 방면 3Km지점에 광덕사 위치

●대구에서 중앙고속도로→통기I.C→제천 단양 방면→대강 좌회전→사인암→방곡도예촌 방면 3Km지점에 광덕사 위치

●서울 청량리역에서 기차로 단양역 도착→사인암에서 3Km지점에 광덕사 위치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로 단양터미널 도착→사인암에서 3Km지점에 광덕사 위치

금동대불 백만불전 11월2일 기공

법요식 이어 경노잔치 · 불자 노래자랑 행사

귀의삼보 하옵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고마움은 한없이 내린 눈 보다도 더 많이 쌓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합장 하옵고 기도드리오니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성취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11월2일(음9월28일 토요일)을 맞이하여 이곳 도락산에 '금동대불 백만불전' 기공식을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분향을 올려주신다면 더욱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삼가 초청하옵니다. 나무시방 불법승

광덕사 회주 혜인 합장

■기공식 안내

1부 법요의식

2부 경노잔치 및 전국 불자 노래자랑

■일시:2002년 11월 2일 오후 2시

■장소:단양 광덕사 백만불전 신축현장

충북 단양군 대강면 직터리 산30, 043)421-5604

금동대불 백만불전 불사 동참하세요



'평생축원' 자동가입혜택

★평생축원에 가입하신 불자님에게는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 평생동안 매월 음력 보름날마다 기도 축원 드리며,
- 사후에는 49재 불공시식 올리고
- 만년위패 봉안하며
- 동참금은 금동대불 백만불전 건립불사에 사용되고
- 동참자 명단은 금동대불 복장에 모시게 되며
- 비석에 영원히 새겨 역사와 함께 빛날 것입니다.

★백만불전의 대들보나 기둥불사 그리고 금동대불 조성 동참자는 평생축원에 자동 가입됩니다.

- 대들보: 오백만원
- 기둥 : 이백만원
- 금동대불 조성 : 일백만원

★불사에 동참하실 불자께서는 아래의 계좌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농협 749-01-340572 예금주: 봉찬회 광덕사

우체국 60064-02-038450 예금주: 봉찬회 광덕사

★문의: (043)421-5604, (043)421-4701